

## 생태자원의 활용사례(1) : 철새도래지의 탐조관광<sup>1)</sup>

이 기 섭<sup>2)</sup>

한국환경생태연구소

### 탐조관광의 의의

주변의 생태계가 점차 단순해지고 파괴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길 더욱 원한다. 하지만 자연에서 먹고 놀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는 가운데 배우고 즐기는 생태관광(ecotourism)이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 중에서 아름다운 새를 보면서 즐기고 새를 통해 생태계를 배우는 일은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잊고 자연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관광이다.

한국에선 탐조관광(birding tour)이 낯설고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서구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에선 탐조관광이 비교적 익숙하며 탐조만을 기획하는 여행사들도 있다. 최근에는 생태관광이란 말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농촌 체험, 농사 체험, 모험 관광, 사파리 관광, 에코다이빙 등 다양한 상품이 기획되고 있다. 탐조관광도 이러한 생태관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탐조관광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 경험이 쌓일수록 레포츠처럼 재미를 더 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 생태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양이

나 휴식을 위한 관광이나 오락적 유흥 관광 등의 단순한 대중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처럼 테마를 갖는 관광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류는 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일수록 다양하게 서식한다. 또한 종류마다 각기 서식하는 장소가 다르고 먹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류를 통해 생태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탐조객들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유적을 답사하듯이 열대우림, 초원지대, 하구 습지, 온대림, 툰드라, 사막 등 각 생물권마다 다양하게 서식하는 새들을 보고 즐기면서 생태계를 이해한다. 또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를 통해 각 나라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기도 한다. 탐조를 즐기는 사람들은 희귀한 새나 길을 잃어 엉뚱한 곳을 찾은 미조(vagrants)를 보면 흥분한다. 유럽에는 너무나 희귀해서 보기 힘들어도 우리나라에 오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있다면 유럽인들을 한국으로 부르는 매력을 주기도 한다. 두루미나 저어새와 같이 한국에 와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새가 있다면 이 또한 많은 외국 탐조관광객을 불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 듯 바다

1)Using Cases of Ecological Resources (1) : Birding Tour on Migratory Bird Site

2)LEE, Kisup,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Environment. E-mail: grus@kienv.co.kr